

### ■ 손보사 리스크 관리, 전담팀 운영 활발

손보사들의 리스크 관리 전담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삼성, LG, 현대, 동부 등 상위사와 중위권의 대다수 손보사들이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는 부문별로 리스크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동아와 대한은 준비중이다.

IMF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악화로 부각되기 시작한 자산운용 위험관리는 이제 경영의 주요 지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리스크 관리란 경영환경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수치화 하여 손해를 구체적인 금융으로 측정된 후 위험을 회피하거나 이를 분산시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손보사들은 지금까지 매출액 위주의 경영을 해왔다. 그러나 국제화·규제완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가 경영의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자산운용부문과 영업부문에서도 기존의 매출액 증대, 건수 위주의 정책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최소 위험과 양호한 손해율이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손보사들의 경영평가에 매출액보다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 측면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종합적 리스크 관리가 매출·수익과 더불어 경영의 주요 지

표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손보사들의 안정된 경영기반 구축과 위기시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신보”(’99.6.14)

### ■ 손보, 지급여력기준 대폭 강화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손보사의 지급여력제도를 대폭 강화·개정해 손보사로 하여금 적정한 지급여력을 보유함으로써 재무 건전화를 유도하고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보험종목별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일반종목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럽연합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각 손보사는 장기손보의 지급여력기준을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강화하고 장기보험의 보유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업계 지급여력기준이 총 3천2백43억원 증가하고 지급여력은 7백77억원이 감소해 지급여력비율이 현행 256.1%에 비해 61.1% 하락한 19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 그 비율에 따라 3단계 조치토록 변경했다.

그러나 해동과 서울보증의 경우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정상화 계획 이행기간동안은 지급여력과 관련된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고 있다.

— “보험신보”(‘99.7.5)

### ■ 제조물책임법 2001년 시행

재정경제부는 7월 12일, 제조물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PL)법을 2001년부터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3일자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PL법은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생겼을 경우 제조자의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제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그러나 제조업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유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수입품에도 적용돼 손해 발생시 수입업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 “한국일보”(‘99.7.13)

### ■ 손보사 보험사기 손실

손해보험 사기사건으로 인한 국내 11개 원수손보사들의 손실규모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손보업계 전체 당기순이익 2,193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와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보험사기에 따른 손보사 손실규모는 보험개발원이 29일 발표한 「보험사기 성향과 규모 추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 “보험매일”(‘99.7.30)

### ■ 美, 2분기 대재해손해액 32억5천만달러

미국 손해보험시장의 올해 2분기 대재해 손해액은 32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보험요율 산정 및 손해액을 집계하는 ISO (Insurance Services Office)의 Property Claim Services에 따르면, 2분기 대재해 (Catastrophic Loss) 사고는 13건, 보험손해액은 32억5천만달러에 달했다. 이 기관은 대재해사고를 손해액이 2천5백만달러(2백70억원) 이상이거나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재해로는 5월초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에 피해를 입힌 토네이도가 있으며 사고로 인한 보험손해액만 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대재해 발생 손해액은 51억달러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 55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지난해 대재해로 인한 미국 손해보험시장의 손해액은 1백1억달러였다.

— “보험신보”(‘99.7.26)